예수님을 닮아 사는 우리들의

# 작은 마음

제 2088호 2019. 7. 7. 연중 제14주일

제1독서 : 이사야서 66,10-14ㄷ
제2독서 :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6,14-18
복 음 : 루카 복음서 10,1-12.17-20 또는 10,1-9

발 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초등부
주 소 : 03083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56 가톨릭 청소년회관 내 '작은마음'
이메일 : littlemm1@hanmail.net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그림_ 이수빈 소화데레사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일흔두 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에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 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신부님 말씀

#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요

4종로지구 세검정 성당
박상욱 토마스아퀴나스 신부님

안녕하세요, 작은마음 친구들! 지난 주일에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나누어 보았는데, 이번 주는 우리 친구들이 그 부르심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지 나누어 보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은 복음이 어떤 뜻인지 알고 있을까요?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 등 다양한 뜻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복음의 뜻은, 오늘 복음 말씀에도 등장하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예를 들면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주신다거나 맛있는 것을 사주실 때 어떤 모습을 지닐까요? 행복하고 무엇이든지 즐겁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이 행복하게 집에서나 학교, 성당에서 기쁘게 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일 것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지녔던 그 행복한 마음을 그리고 기뻤던 마음을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지녀야 할 모습을 직접 공생활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가난한 친구들에게는 사랑을 전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는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고, 또 나에게 잘못한 친구에게 용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길이에요.

그림_ 최진태 임마누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많은 사랑의 모습들을 담아보고 실천할 수 있다면 하느님께서도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해주시며 더 큰 기쁨을 가져다주실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을 기억해보며 다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보았으면 해요.

소금통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을 위하여 무엇을 빌라고 하셨나요?

① 사랑 ② 평화 ③ 재물

도란도란 성경여행

# 사무엘이 실로에 머무르다 (사무엘기 상권 2,18-21)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아마포 에폿을 두르고 주님을 섬겼다.
그의 어머니는 해마다 남편과 함께 주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올 때면
그에게 작은 예복을 지어 가져왔다.
그러면 엘리는 "주님께서 이 여인이 바친 예물 대신,
이 여인에게서 난 후손으로 그대에게 갚아 주시기 바라오." 하며 복을 빌어 주었다.

* 똑같은 그림의 사무엘을 찾아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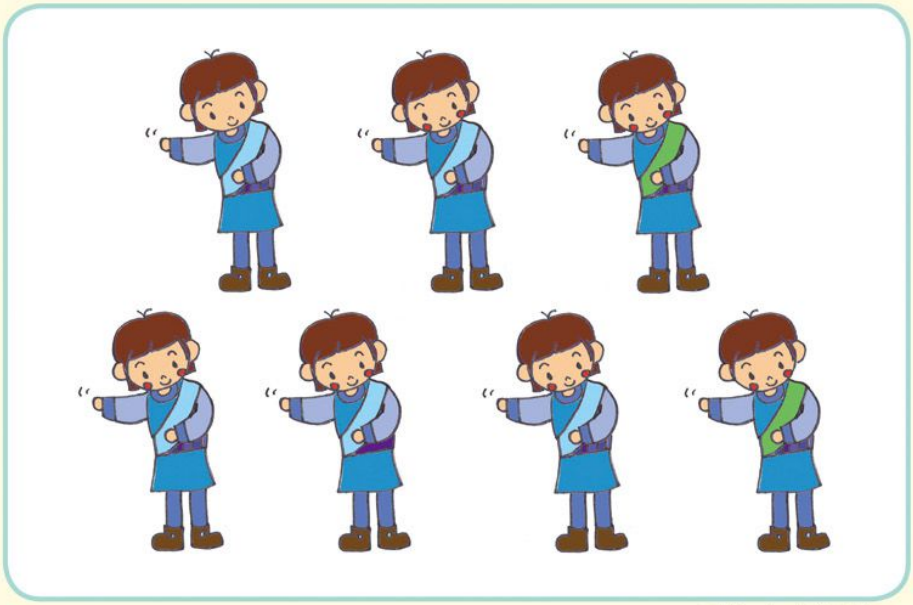


그림_ 송민경 도로테아

글/그림 이정현 베네딕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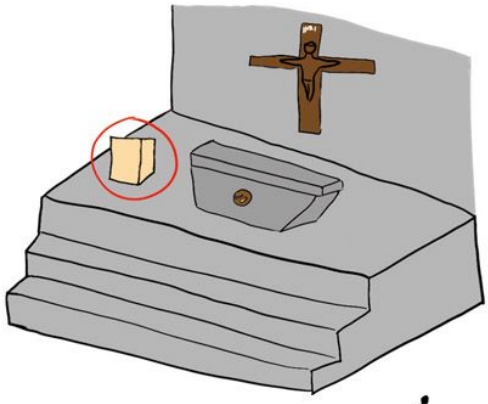
◆ 나에게 모여라, 내게 충실한 자들아 (시편 50,5) ◆

# 고야의 성당 관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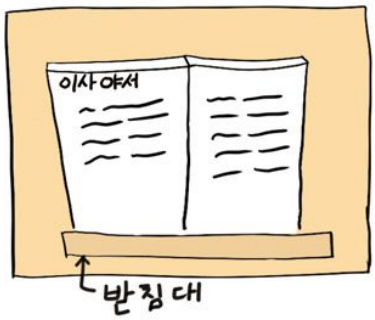
★ 관찰자: 1 학년 이름 최고야

| | |
|---|---|
| ★ 관찰 기간 | 2019년 6 월 30 일부터 7 월 7 일까지 |
| ★ 관찰 주제 | 독서대 |

## 관찰 내용



제대 왼쪽에는 '독서대'가 있다.
독서대는 신부님 그리고 독서자가
성경을 다른 사람들에게
읽어주는 곳이다.




〈독서대의 위치〉

독서대는 제대와 신자석 사이에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신자들에게 하느님, 예수님의
말씀을 말해주는데 가장
좋은 위치이기 때문이다.

〈독서대에 있는것〉

독서대에는 그날 미사의
복음과 독서가 적힌 책이 있다.
신부님이 복음을, 독서자가
독서 부분을 읽는다.

| | |
|---|---|
| 새롭게 발견하거나 알게 된 점 | 독서대는 하느님,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곳이다. |